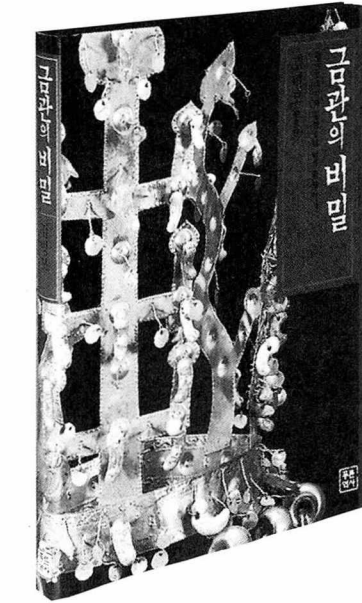


# 눈부신 금관에서 펼쳐지는 고대문화의 세계

《금관의 비밀》 펴낸 김병모 교수



김병모 교수

“군계일학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독창적인 신라금관을 제대로 해설할 수 없다면 곧 우리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신라의 금관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찬란함에 눈이 부셨다. 금관의 영롱한 빛은 바로 어제인 듯한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역사는 말이 없다. 화려한 금관을 쓴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금관을 쓰고 실제 예식을 거행할 수는 있었을까, 금관에 달린 장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독특한 디자인은 어떤 상상을 품은 것일까. 꼬리를 잇는 숱한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1500년 전의 시공간을 찾아떠나야 한다. 그곳에서 김병모(59, 현양대 인류학) 교수가 건네주는 《금관의 비밀》(푸른역사)이라는 책의 열쇠로 '비밀의 문'을 열어볼 수 있다. 저자는 '신라금관의 비밀'을 풀어나가기 위해 “머리카락 한 올의 단서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추적하는 탐정처럼” 예민한 역사의 후각을 곤두세운다.

## 흘려져 있는 금문화권의 흔적들

“한국 금관은 그 미적 특징이나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 상징성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군계일학의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독창적인 신라 금관을 제대로 해설할 수 없다면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단지 외형적인 모습을 해설하기보다는 귀중한 유물에 담긴 암호를 하나씩 풀어가며 당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90년대 들어 중국과 구소련 지역이

개방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 찾기를 위한 현지탐사 여행은 가능했다. 이번 저서에 관련해서만 다섯차례 길을 떠났다. 그 기나긴 여정에서 고대 금문화권의 흩어져 있는 맥을 발견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르쿠츠크의 사면 복장, 야쿠티아 여인들의 민속모자, 몽골족의 축제 '나담'에서 보았던 신라 금관을 구성하는 새·사슴뿔·곡옥모양과 각배의 풍습 등 화석 같은 흔적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좇는 중요한 학문의 단서가 되었다.

금관의 비밀을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는 “꿈에 현몽하듯 만난 은인”,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의 '아키셰브' 교수였다. 스키타이의 '이썸' 고분을 발굴, '황금인간'을 발견한 인류학자인 그의 안내로 사면 혹은 추장으로 추정되는 황금인간을 만나게 된다. 금비늘로 덮은 가죽옷과 장화, 금판으로 된 삼각모자, 그리고 모자에 꽃힌 '나무 위에 새가 앉은' 장식핀. 바로 그 순간 김교수는 탄성을 질렀다. 알타이 민속에서 절대자와의 교감에 안내자 역할을 했던 새는 마치 신라 금관의 새장식과 솟대의 새를 연상시키는 바로 그것이었다. 비로소 고대 삼국의 설화와 유물에 등장하는 새와 고대 '신조사상(神鳥思想)'의 고고학적 추적이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조사상과 더불어 천마사상 역시 신라인의 기마민족적 성품을 드러내며, 신라금관의 나뭇가지 모양장식과 솟대 풍속 등에서 나

타나는 '나무승배' 사상은 오늘날 바이칼 호반 야쿠트지방에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삼국시대 갑자기 등장한 '각배' 역시 중앙아시아와 동북아 기마민족간의 문화 접촉으로 생긴 풍습이라고 해석한다. 이로써 김교수는 '금관'에 들어 있는 '각배에 술을 가득 담아 마시고 백마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때 새들이 길을 안내해준다고 믿었던 신라인들의 모습'을 천오백년 전 상상의 세계에 펼쳐보인다.

“이때부터 금관의 사진을 몽땅 연구실 벽에다 붙여놓고, 신라 역대 왕들의 이름과 금관 리스트를 스티커로 붙여가면서 맞춰나가기 시작했죠. 금관의 주인공과 금관의 상징, 장식모양 등이 어느 순간 딱 일치하던 때의 희열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금관의 주인공을 찾는 작업 역시 마치 널려진 단서들 틈 사이에서 사건의 전모를 추리하는 과정과 닮았다. 우선 신라 왕족 중 금관을 사용한 왕들은 김씨계 인물이라는 전제부터 출발했다. '금알지'의 이름인 '알지'가 알타이어족에서 금을 뜻한다는 것은 '알트-알튼-알타이-이르치-알치'로 변해온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알타이 산맥 주변에 흐르는 '아르티사 강이 옥과 사금으로 유명하고, 그 산이름 역시 '금산(알타이산)'인 것도 뚜렷한 증거다.

결국 김씨계 중 왕위가 끊이지 않고 4대

까지 계속된 내물왕계의 놀지와 자비·소지·지증왕을 주목하게 된다. 금관의 단수가 높을수록 후대의 것이니 4단입식의 금관이 나온 천마총과 금령총을 소지왕과 지증왕대의 것으로 본다면, 생명나무의 열매 곧 후손을 상징하는 곡옥이 달린 4단입식의 천마총 금관은 적통을 두었던 지증왕의 무덤이라는 결론이다.

## 정체성을 좇는 기나긴 여정

이처럼 김교수의 연구작업은 금관의 외형적인 접근에 그치지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역사와 당시 금관을 만들어 머리에 쓴 사람들의 의식세계, 금관에 표현된 각각의 특성과 미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화의 또다른 사유세계를 열어보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윤덕향 전북대 교수는 “금관이라는 유물을 분석해 그 내면에 숨어 있는 문화적 정신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아내려”(《고조선》) 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권영필 고려대 교수는 “은실고고학을 지양하고 시베리아·북아시아 등 치밀한 현장탐사를 거쳤으며, 금관을 구심점으로 고대문화를 복합적 입체적으로 탐사했다”(《전통과현대》)고 의미를 두었다.

저자 자신의 뿌리찾기이기도 했던 여행길은 이제 최초의 '김씨성'을 가졌던 옛 후도국 출신의 왕자 '프린스 킴'의 발자취를 따라 옮겨질 예정이다. 한무제에게 김씨성을 받은 첫 인물로 중국에서 인질로 살다 서안에 묻힌 '프린스 킴'에 대한 연구는 '금관' 이전부터 가져온 관심이었다. 이는 《아시아 거석문화연구》《한국인의 발자취》《김수로 왕비 허황옥》 등 일련의 저서들과 맥락이 닿아 있다.

해마다 고대문화의 흔적을 따라 배낭을 꾸리는 김교수의 호방한 역사적 상상력은 오랜 '독서이력'이 뒷받침됐다. '인류학'으로의 학문인생 출발도 엄청난 책들의 섭렵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오지를 다니며 모은 유목민들의 다양한 현악기 30여종도 학문 외의 즐거움이다. 대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명강의에 특유의 활달함을 지닌 김교수는 올 여름 예정된 천산산맥과 하서로 이어지는 고난한 '뿌리찾기'의 여정을 여전히 설렘으로 기다린다. — 김지원 기자